

광주 신가동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간 '마당집'



▲'마당집'을 꾸미고 있는 청소년들이 작업 전 일하는 요령 등을 자원봉사자에게 듣고 있다.

◀지난 26일 광주시 광산구 신가도서관 인근 빈집에서 문화공간 '마당집'을 직접 만들고 있는 청소년들이 망치와 정을 들고 벽을 허물고 있다.

벽을 허물고

문화를 짓다

25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신가도서관 인근 한 빈집 마당에 옛날 얼굴의 청소년들이 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공간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대학생들도 쇠파지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낡은 벽을 허물 준비를 하는 동안 골목 안으로 철거 쓰레기를 싣고 갈 트럭 한 대가 들어섰다.

신가동에 청소년들이 꾸미는 이색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갈 곳이 마땅찮았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함께 토론도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영화제를 여는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문화공간을 누구나 와서 쉬며, 놀며,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곳이라는 뜻을 담아 '마당집'이라는 이름도 내걸었다. '마당집'에는 주인도 없고, 누구나 일을 하는 '마당쇠'로 불린다. 이곳은 누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당쇠'들이 직접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골목영화제는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되고 있다.

정부와 어른이 나서서 청소년센터 등을 조성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기획 뿐 아니라 공사까지 직접 진행하는 문화공간은 흔치 않다. 국내에 술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창이지만 청소년의 손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곳도 거의 없다.

이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마을 곳

곳에 빈집이 많다. 공간이 늘면서 밤에는 골목을 지나는 주민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 아이들도 학교와 도서관을 빼면 갈 곳이 없었다.

몇몇 뜻있는 어른이 힘을 모으면서 '마당집'의 기적이 시작됐다. 한 주민이 세가 나가지 않는 빈집을 "마음껏 쓰라"며 큰 결심을 했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긴 10여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금을 모았다.

'마당집'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난달 빈집을 청소하며 시작된 철거 공사를 돕겠다고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20여명의 청소년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해 본적이 없어 공사는 늘더디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하는 방법과 필요성을 먼저 알려주고, 다치지 않게 느리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사도 마찬가지로였다. '마당쇠'로

불리는 하정호씨가 전기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은 뒤 대학생들이 망치질을 시작했다. 선배들의 일 하는 모습을 한 참 지켜보던 10여명의 청소년들도 작은 망치와 정으로 벽을 부수고, 깨진 벽돌을 트럭에 옮겨 실었다.

벽은 절반만 허물고 1m 가량 벽돌을 남겨둔 뒤 그 위에 나무 벽을 설치한다. 이 나무 벽은 타자로 쓸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들 계획이다. 손으로 밀면 나무 벽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민 누구나 타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또 이 타자와 주변 계단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앉아 영화도 보고, 토론도 할 계획이다.

'마당집'의 공간이 30여평이 넘지 않아 골목과 인근의 계단을 활용하기 위해 벽 또한 '열린 벽'으로 만들고 있다.

남학생들이 벽을 허물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여학생들이 마을 길고양이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집과 창문에 걸어 나무 가림막에 곱게 색을 칠하고 있었다.

또 몇몇 여학생들은 인근 공원을 청소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쥐고 '마당집'을 나섰다.

김초롱(성덕고1년)양은 "마당집은 숲과 같은 공간이고, 휴식도 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다"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도 주고,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주는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도움도 늘고 있다. 처음에는 이상한 젊은이들이 무슨 짓을 한다는 눈초리를 보냈지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인근의 빈터를 '마당집' 아이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땅 주인의 배려와 주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성과였다.

'마당쇠' 하정호씨는 "아이들과 동네의 빈 집과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화단을 가꿀 계획이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에 참여해 예산을 받기 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계획을 짜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와 마을을 가꾸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31회 무등미술대전' 대상 7개 작품 선정

한국화 부문 임영모 '소슬'
양화는 지인규 'The blue'

이번 무등미술대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9개 부문에 1212점이 응모했으며 특선 222점, 입선 481점 등을 포함해 모두 734점이 입선했다.

제31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소슬'을 출품한 임영모(60·경기도 성남시)씨가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지인규(59·경기도 용인시)씨가 'The blue'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지난 23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31회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7개 부문 7개 작품을 대상으로, 9개 부문 24점을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판화와 조각 부문 대상작은 없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문인화 허영리(56·광주시 서구) '맑은향기' ▲수채화 고현주(52·광주시 북구) '신명' ▲공예 홍순원(경기도 고양시) '흐름' ▲서예 김선미(50·목포시 옥암동) '퇴계선생시' ▲황규환(41·완주군 용진면) '가족의 흐름' 등이다.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시상된다. 입상작품들은 오는 8월7~1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33-19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국화 부문 대상 임영모 작 '소슬'

정경화 초대전 '도화현-별이 빛나는 밤에'

31일까지 고흥 도화현미술관

맑고 투명한 묵법(墨法) 속에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밤이 담겨 있다. 그 안에 총총하게 박힌 고흥의 별들은 더할나위 없이 아름답다. 작가는 고흥을 "하늘과 가까운 동네"라고 극찬했다.

고흥 도화현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정경화씨를 초대해 '도화현-별이 빛나는 밤에'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전남문예재단이 후원하는 도화현 레지던스에 참여한 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고흥 밤하늘의 별을 담은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나무와 숲, 바위와 산 등과 같은 자연을 바탕에 두고, 그런 자연이 밤하늘의 별과 나누는 대화를 작품에 담았다. 작가는 한성대 예술대학 회화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홍익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문의 061-832-13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별이 빛나는 밤에'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술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영초교

금남로

KT

한화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

북경랑 한의원

진료문의

(062) 227-7575